

동북아 계놈분석, 한민족 북방기원 연구에서 무엇인가?

CHU Chaehyok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백두산 호랑이가 시베리아 호랑이와 생태유전학적으로 상통된다면, 백두산 조선족 또한 고원지대에서 고원지대로 돌아다니며 사는 동물의 생태상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원지역보다 한민족의 시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도리어 더 먼 알타이-사안산맥이나 티베트고원이 역사적으로 더 밀접하게 接脈돼 왔을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생물들의 생태사와 관련해 시베리아와 백두대간권을 연계해 연구하려면, 당연히 민족사의 역사적 태반 연구에, 계놈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시베리아의 생태사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스텝-타이가-툰드라지대로 이루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드넓은 ‘숲의 바다’ 시베리아는 수많은 짐승들의 서식지다. 그래서 이곳을 역사적 태반으로 起源한 고려와 신라를 내포하는 原조선겨레의 주된 생업이 순록유목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식량채집단계에서 식량생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대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순록이나 양 유목을 핵심 문제로 삼게 된다. 시베리아의 생태환경으로 보아 시원적인 유목은 순록유목이고 그래서 ‘조선’이나 ‘고려’ 또는 ‘구르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또한 순록유목과 직관된다고 본다. 조선이 ‘아침의 나라’가 아니고 ‘북방순록유목민의 나라’라면 이들이 분기되어 기마양유목민이나 농경-목축민으로 발전한 역사의 길을 추적해 동북아 계놈의 비교-분석을 하는 일이 한민족 북방기원 연구를 위해 해야 할 급선무일 것이다.